## 화요세평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교육 혁신 필요

김명화
교육학박사·작가

코로나 위급 상황이 계속돼 학생들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전염병이 발생 되었을 때 학교를 등교하지 않는다는 교육부 정책에 "머선 129(무슨 일이야?)"하며 의아해 했다. 그러나 전염병이 장기화 되자 사회적 거리 제한으로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 되어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를 듣고 자란 기성세대는 아파도 학교는 가야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다. 아버지가 사준 빨간 가방과 파랑색 운동화를 신고 학교를 갔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같이 학교를 다니던 덕이가 "우리 학교가지 말고 놀자." 라는 말에 동천에서 놀다 엄마에게 엄청 혼이 났다.

그해 겨울 방학이 끝나고 학기말에 결석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선생님은 상을 줬다. 개근상이었다. 어린 마음에 상이 부러웠다. 그 뒤로 결석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성실함이 덕목이었던 시대에 학교에 결석하면 큰일이 나는 세상에 살았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가 변했다. 그동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은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산업사회 체제에 맞춰 학생보다는 공동체에 적합한 교육과정이었다. 지식기반 사회를 넘어 인공지능, 융합의 시대에는 교육과정에도 대혁신이 필요하다.

### 트렌드에 걸맞은 교육

AI 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온라인으로 열린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토론회에서 '디지털에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2022년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공교육이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계, 산업계, 학계에서 공동으로 제시됐다.' 고 밝혔다. 앞으로 20년 후인 2040년에는 디지털 시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에도 전면적인 변화가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본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교사양성과정도 혁신이 필요하다. 저출산이 지속되고 전염병 확산에 대비하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교사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활용과 교수법이 필요하며 융합적 사고능력에 따른 대화, 토의, 서로 가르치기 등의 토론수업을 통한 1대1 맞춤형 학교 현장이 돼야 한다.

한편, 대통령직속국가교육학회에서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을 조사했는데 인성교육, 인문학, 진로교육 교육에 이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이 4위를 차지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집계하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교육이 2위였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은 인성교육을 강조한 반면에 학생들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현준 건축가는 '공간의 미래' 라는 저서에서 전염병에 강한 학교를 만들려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교생 1,000명의 학교보다는 전교생 100명의 학교를 10개를 만드는 것이 전염병 예방에 효과적' 이라고 했다. 저출산 시대에 작은 학교가 맞다. 따라서 작은 학교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면 중심 센터 학교가 있어 위성학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학교 건축에도 변화가 시도돼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의 가치는 공동체 안에서 또래 친구들과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전염병, 황사,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되어지면 학교는 온라인 수업 비중이 늘어나고 대인관계와 공감 능력에 관한 교육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융합, 인공지능, 첨단화 시설에 대비를 위해 교사의 양성과정에서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따른 교과목이 필요할 것이며 교사는 지식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해주는 코칭의 역할이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본다.

### 맞춤형 교육과정 중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가 왔다. 미래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는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없는 메타버스가 될 것이다. 메타버스 놀이터에서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되려면 학생을 담당하는 교사교육이 먼저다. '버스는 놓치더라도 메타버스는 놓치지 마세요.', 버스는 출발했다. 메타버스 정거장에서 각자의 업무에 맞춰 탑승하게 하려면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학교는 지식의 장, 또래 공동체의 삶을 배우는 과정, 돌봄의 기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지식이 결합된 융합형 교육과정, 토론, 토의, 대화를 통한 공감코칭형 교육과정이 돼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의 혁신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 사설

# 디자인과 수묵은 친화성이 없는가

전국적인 관심 속에서 비엔날레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전남수묵비엔날레가 지난 1일 동시에 개막해 다음달 말까지 이어진다. 수묵비엔날레는 지난해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순연됐다. 2개의 비엔날레가 같은 기간 선보여 지역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의 향연이란 찬사가 쏟아지지만 아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얼마 전 한 지역대학 명예교수가 두 비엔날레를 광주와 전남의 상생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두 비엔날레 개막식에 동시에 참석하고, 두 행사 주최 측이 관람객들을 서로 교차 방문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이 전해졌는지 안 됐는지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각각 개막식을 열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뿌리의 지역에서 같은 기간 열리는 대규모 문화행사가 별개의 행사로, 독립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이다. 디자인비엔날레는 현대, 수묵비엔날레는 고전 아트로 불릴 수 있겠으나 사실 아트 분야에서 현대와 고전의 경계가 무의미할 만큼 서로 넘나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주비엔날레 또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남수묵비엔날레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미의 설렘이라는 흥과 격찬 속에서 선보이는 자리에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기관 수장, 당국 관계자가 저간의 소원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현안을 제쳐두고 허심탄회하게 예술적으로 만날 수 있었지만 불발됐다. 두 행정기관이 그런 만남을 기획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자연스럽게 이 시장과 김 지사가 환하게 웃으며 악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아쉽다. 다음달 폐막까지 시간이 많이 있으므로 멋진 만남을 연출해보길 바란다.

# 전남대-여수시 상생노력 기대 크다

전남대와 여수시가 지역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동발전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전남대 여수캠퍼스에 여순사건 연구소 신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향후 다양한 실질 협력을 기대케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최근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남대-여수시 상생발전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남대는 '지자체-지방대학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에 근거, 지원위원회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키로 화답했다.

특히 양 기관은 다소 시급한 현안에 대해 뜻을 모았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 의 후속조치를 위해 여수시가 요청한 '전남대 여수캠퍼스 여순사건 연구소 신설' 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키로 합의해 상호 협력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전남대는 여수시에 글로벌 에듀시티 구축을 위한 대학 연계 국제화 교육을 제안했다. 더불어 여수시는 전 지구적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하는 자리인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지원 참여 등을 대학에 제안했다. 양 측은 이날 모두 10건에 이르는 실질적인 현안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에서 전남대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서 고등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해야 하는 책임감을 보여줬다. 여수시는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대학의 발전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발전 또한 모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양 기관의 대화와 협력은 곧 지역과 대학 모두의 상생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이봉철의 알찌골프 〈21〉

# 퍼포먼스를 위한 몸풀기 '워밍업'

워밍업(Warming up)은 준비운동이라는 뜻으로 골프 라운드의 효율을 높이고 부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데우기, 따듯해짐이라는 명사로 몸을 데우는 개념이다. 워밍업은 관절과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모세관을 열어줘 근육의 스트레칭을 돕고 부상을 예방한다. 더불어 라운드에 임할 때 집중력을 높여줘 경기력을 향상시킨다.

라운드 내내 흐트러지지않는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강인한 체력을 길러야 한다. 프로골퍼들은 지치지 않는 체력을 위해서 꾸준한 워밍업과 근력운동으로 매일 단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골퍼들 입장에서는 바쁜 일과중에 연습도 게을러지고 골프 부킹 또한 쉽지 않는 형편이기에 골프 참여 기회가 그리 녹록치 못하다. 어쩌다 동료들과 라운드 일정이 잡히게 되면 연습도 없이 클럽만 매고 골프장으로 향하게 된다. 스윙을 하는데 그 동안 쉬고 있던 몸의 상태로 인해 온전한 스윙을 할 수 있을까? 터무니 없는 실수를 연발하고 예기치 않은 부상을 입기도 한다. 잔뜩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던 골프 라운드가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다. 비기너들의 라운드 현실이다.

실전 라운드에 나서기 전에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다. 연습과 몸풀기이다. 연습은 연습장이나 숏게임장에서 샷을 점검하거나 스크린골프장에서 라운드의 전체 흐름을 몸에 익히는 방법이다. 필드에 나섰을 때 부담이 한결 줄어들 것이다. 몸풀기는 라운드 전후에 근육을 조절하여야 한다. 라운드 전에는 부상을 방지하고 더 높은 경기력을 확보하기 위한 몸 풀기이며 라운드 후에는 풀어졌던 근육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끔하는 몸풀기이다.

워밍업은 인체의 관절과 근육이 부드럽게 작동하기 위한 몸풀기로서 적당하게 체온 상승이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걷기, 맨손체조, 스트레칭, 스윙연습, 도구사용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몸풀기는 최소

한 30분전에 골프장에 도착해 10분정도 몸을 풀어주면 좋다. 날씨, 나이, 몸 상태에 따라 시간과 강약을 조절하고 비교적 가볍게 하는 것이 좋다. 최적의 워밍업은 프리 라운드 루틴으로 일정한 흐름으로 수행해야 하지 서두르면 안된다. 샷을 하는 것처럼 몸풀기도 프리 라운드 루틴이다. 라운드전에 몸풀기로 시작하고 18홀의 라운드 그리고 라운드후의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티 타임 15분 전에 도착해 곧바로 티잉 구역으로 조급하게 향한다. 그리고 라운드 티업전에 하는 스트레칭만을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류는 라운드전에 하는 정적인 스트레칭이다. 하지만 몸이 워밍업되기 전에 근육이 신장시키는 정적인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근육을 극도로 이완시키는 정적스트레칭은 동작이 끝나면 오히려 근육수축을 유발하게 때문이다.

온몸이 차가우면 근육 섬유들은 준비가 되지 않아 오히려 다치기 쉽다는 원리이다. 따라서 가볍게 몸을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몸풀기를 한다음 스트레칭을 하여야 한다. 라운드전에는 유산소 운동이나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라운드 후에는 가동된 근육의 자극을 줄여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

/한국골프학회부회장, 체육학박사

## 독자광장

# 노인 교통사고 모두의 관심 필요하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 미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야기되고 있는데, 특히 노인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예방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운전자와 보행자를 포함한 만65세 이상 고령층 교통사고가 3만9,500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10년 전인 지난 2011년 2만1,134건 대비 86.9%나 증가한 수치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한 감소세를 나타내는 것과 반대로 고령 사망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경우 청장년층에 비해 시각과 청각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 중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가 어려워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고, 운전 중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교통사고에서도 취약하다.

무단횡단,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등 교통질서 전반에 대한 국민 의식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고령층에 대한 주의와 관심은 꾸준하게 요구된다.

노인들의 야간 외출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제시키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흰색 계통의 밝은 옷 착용, 갓길 통행, 횡단보도 이용, 무단횡단 금지 등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당부와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교통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시설 보완은 물론 운전면허제도 개선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교통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간절히 소망한다.

/전상철 광주 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 방역 실패 자영업자 '책임전가' 안된다

## 기자수첩

오지현
경제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버틸 수 없다며 강력히 저항하고 나섰다.

최근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광주시지회와 광주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K방역 성공과 확진자 감소를 위해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나 그 사이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하며 대출로 연명하는 등 사실상 낭떠러지에 매달린 심정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와 더불어 손실보상과 영업제한 완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의 방역지침 실패 원인을 자영업자들에게 이른바 '책임전가'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 또한 마찬가지다. 전국자영업자비생대책위에 따르면 자영업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은 오는 8일 전국 심야 차량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에게 약 1,000통에 달하는 편지를 보내며 전쟁에 지원할 것을 간청했다. 처칠은 영국이 처한 자금난을 호소하며 미국의 지원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국내 반전 여론을 이유로 파병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이 히틀러의 공격으로 영국의 피해는 더욱 막심해졌고, 결국 루스벨트는 1941년 12월 8일, 일본으로부터 미국의 영토인 진주만을 공습 당한 직후 그제서야 참전을 선언한다.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1939년 제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미국이 약 2년이나 지나 참전한 배경에는 자국 군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책임전가' 전략이 깔려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며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이 그 무엇보다 최선시되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들에게 책임전가해서는 안된다. 단 한 줄의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자영업자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외면한다면, 그 다음 곤경에 처할 상대는 바로 대한민국 그 자체일지 모른다.

| 생활정보전화 | | 긴급전화 | |
|---|---|---|---|
| ▲이주여성 긴급전화 | 1577-1366 | ▲기상예보 | 131 |
| ▲응급질병상담 | 1339 | ▲법률구조상담 | 132 |
| ▲미아·가출인 신고 |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 222-5666 |
| ▲여성 긴급전화 | 1366 | ▲광주 여성의 전화 | 363-7739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 1388 | ▲수도 고장신고 | 121 |
| ▲아동보호전문기관 | 1577-1391 | ▲전기고장 신고 | 123 |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가스사고 신고 | 383-0019 |
| ▲응급의료센터 | 1339 | |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06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산실 (062) 720-1033
사회2부 (062) 720-1043 월간국 (062) 720-1007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04
문화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1099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리국 (062) 720-1012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3 • 사회부장 010-5601-2219 • FAX (062) 720-1080 •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